

성향점수매칭법을 이용한 정주공간 유형별 주관적 삶의 질 수준 비교*

권인혜** · 박인권***

Comparison of Subjective Quality of Life by Settlement Type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Inhye Kwon** · In Kwon Park***

국문요약 이 연구는 도시-농촌, 수도권-비수도권 등 서로 다른 정주공간 속에서 주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만족도 설문조사’ 원자료를 이용하고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도입하여 정주공간 유형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역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모든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행복도의 경우 농촌 주민이 수도권 도시와 비수도권 도시 거주 주민에 비해 더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영역별 삶의 질을 살펴보면, 기초생활환경, 의료, 문화·여가 영역에서는 수도권 도시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이 대체로 가장 높은 반면, 일자리·소득, 환경, 공동체, 복지 영역에서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이 수도권 및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높다. 흥미롭게도 비수도권 도시가 강점을 보이는 영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결과는 점점 더 고도화되는 도시화 경향 속에서도 농촌이 갖는 가치를 보여주며,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지역만의 가치를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농촌의 환경·경관 가치를 훼손하는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 정주환경을 조화롭게 정비·개발해가기 위해 공간계획에 기반한 농촌재생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주관적 삶의 질, 정주공간, 도시화, 농촌 가치, 성향점수매칭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QoL) perceived by residents in different settlement spaces such as urban vs. rural and Seoul Capital Area (SCA) vs. Non-Capital Area (NCA). Using the data of the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Survey for Balanced Development’ conducted nationwide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2018, a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was introduc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ypes of settlement spaces. The results show that no significant difference is found between all the types in satisfaction with local life, and in the case of happiness, rural residents show a higher level than those living in cities. Looking at the quality of life by QoL domain, the

* 이 연구는 주저자의 박사학위논문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주저자, kinhye@krei.re.kr)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환경계획연구소장(교신저자, parkik@snu.ac.kr)

QoL of urban residents in SCA is generally the highest in the basic living environment, medical care, and culture/leisure domains, while the QoL of rural residents in the job/income, environment, community, and welfare domains is higher than that of residents of SCA and NCA cities. Interestingly, in no domains NCA cities show their relative strength. These results show the value of rural areas in the face of increasingly prevailing urbanization trends, and suggests that the value of rural areas must be strengthened for rural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pursue policy efforts such as rural regeneration based on spatial planning in order to respond to the disorganized development that damages the value of the rural environment and landscape and to harmoniously maintain and develop the rural settlement.

Key Words: Subjective quality of life, settlement space, urbanization, rural values, propensity score matching

1. 서론

“오늘날 세계의 모든 곳은 어느 정도는 도시화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Soja(2014)의 논의에서 보듯 전지구적 범위에서 작동하는 팽창적 도시화 메커니즘으로서 행성적 도시화(planetary urbanization)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Neil Brenner를 중심으로 하는 행성적 도시화론 논지에 따르면 도시 중심과 메트로폴리탄 지역, 도시 외곽지역 등과 같이 기존의 전통적 범주에서 벗어나 있던 사회공간적 방식과 인프라 구조 연결망마저도 전세계적인 도시적 환경의 구성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도시화가 세계의 부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처리과정이 되었고, 도시(the urban)는 점점 더 자본주의의 사회문화와 정치경제 관계들이 얽혀있는 전 세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도시적 공간이 행성적 규모의 도시화 처리과정에 대체로 통합되어져 도시적 세계의 바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Brenner and Schmid, 2014)고 말한다.

우리 사회 역시도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방향은 점점 더 거대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의 도시 거주 비율은 1970년 53.7%로 과반이 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에 90.1%에 도달했고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2020년 현재는 91.8%이다. 국토의 1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2%가 살고 있다.¹⁾ UN이 최근 공식 채택한 새로운 도시 개념

에 입각해 OECD에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은 22개 도시권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영국 96권역, 이탈리아 84권역 등과 비교할 때 대도시 중심의 도시화 추세가 훨씬 강하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 집중이 지속되면서 메가시티 구상과 같은 거대도시 지향도 존재한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더욱 고도화되면서 인구 천만 명이 넘는 초대형 도시인 메가시티가 부상하는 현상 가운데, 우리 사회는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필적하는 메가시티를 전략적으로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²⁾

도시의 삶은 분명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기회와 어메니티, 편리를 제공한다. 상위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집적의 혜택과 어메니티는 대단히 다양하고(Lenzi and Perucca, 2021), 대도시의 집적경제는 노동의 매칭, 서비스 공유, 학습 등 측면에서도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Duranton and Puga, 2004). 도시 생산성 측면에서 얻는 집적효과의 혜택뿐만 아니라 소비 어메니티의 중심으로서 도시의 강점도 존재한다. Glaeser et al.(2001)은 사람들의 거주지역 결정에 있어 지역의 삶의 질이 더욱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네 가지 도시 어메니티 측면에서 도시의 매력을 조명한다. 도시에는 극장, 레스토랑, 매력적인 사회적 파트너들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와 소비재가 존재하며, 미국과 프랑스의 주요 도시 등 풍요로운 소비도시들은 지난 20년간 더욱 빠르게 성장했다. 소비자들은 생활을 즐겁게 만드는 건축미 등과 같은 도시의 미

적 환경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 좋은 학교, 낮은 범죄 수준과 같은 높은 품질의 공공서비스는 높은 학력을 가진 인적 자원을 유치하도록 한다. 시간의 가치가 커짐에 따라 사람들이 이동비용이 큰 지역을 기피하므로 도시의 이동서비스가 제공하는 빠른 속도 또한 필수적 어메니티다(Glaeser et al., 2001).

반면 일찍이 20세기 초 Simmel(1903)이 그의 논문 ‘대도시와 정신적 삶’에서 대도시의 삶이 스트레스와 비인간성(impersonality)을 높이고 사람들의 정신적 삶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제기했던 것처럼 도시의 삶이 사람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도시적 불안(urban malaise)과 사회적 스트레스, 정신질환과 같은 건강 측면에서 대규모 중심지가 야기하는 폐해(Fischer, 1973; Lederbogen et al., 2011)나 보다 작은 규모의 중심에 대한 선호(Fuguitt and Brown, 1990)가 나타날 수 있고 덜 밀집된 환경에서 삶의 질이 더 높다고 주장하는 도시사회학자들의 입장이다. 수도와 같은 대도시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불평등도가 삶의 질을 낮춘다는 보고(Piper, 2015)나 녹지공간이나 자연환경, 소음 등 환경적 측면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도 확인된다(Verheij et al., 2008; Van Praag and Baarsma, 2005).

삶의 질에 관한 오랜 논의가 시작된 배경도 경제적으로 더 발전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병리적 현상들과 무관하지 않다. 서구사회의 물질 성장 이면에 나타나는 사회 문제들에 직면하여 더 높은 경제발전과 물질적 풍요를 이룬 사회가 진정으로 진보한 사회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한 비판적 시각 이후 삶의 질 주제는 오랫동안 여러 학문 분야에서 탐구되어 왔으며, 공간연구 분야에서도 거주자의 삶의 만족, 행복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효과와 도시화 효과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Hand, 2020; Lenzi and Perucca, 2021).

그러나 사람들의 삶의 질과 도시적 또는 농촌적 삶의 관계를 탐구한 국내외의 연구들은 다소 엇갈리는 결과를 보인다. 다수의 연구에서 경제적으로 발전된 사회에서는 도시에 비해 농촌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

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대체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렇게 확정하기에는 여전히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특히 국내 거주민의 삶의 질을 파악한 연구들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 자료의 한계, 그리고 주로 분산분석이나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모형의 통제변수로서 더미변수를 통한 지역유형 간 비교에 머무르는 등 분석 방법의 한계를 보인다.

이 연구는 도시적 및 농촌적 특성이라는 지역 맥락의 상이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정주공간 속에서 주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162개 전 시·군을 수도권 도시, 비수도권 도시, 농촌 등 세 가지 정주공간으로 유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18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삶의 질 수준은 전반적인 주관적 삶의 질 및 9개 영역별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 응답자가 스스로 보고한 만족도 점수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정주공간 유형 간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단순히 응답 점수 평균을 비교하는 것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방법을 통해 차이를 파악하고자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특정 정주공간 유형 거주자의 효과를 도출하여 비교했다.

2.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주관적 삶의 질 개념

삶의 질은 개념이나 그 구성요소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모호성과 의미 경계를 특정하기 어려운 포괄성을 지니는 용어로, 삶의 질과 관련한 오랜 논의 과정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모호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임희섭, 1996). 보편적 정의나 접근법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삶의 질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고명철·최상옥, 2012; 임희섭,

1996) 사용되는 학문적, 정책적 맥락도 매우 다양하여 때로는 삶의 질 논의가 모순적·대립적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했다(한준, 2015). 다수 문헌에서 암묵적 정의 정도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독자는 연구의 맥락이나 채택한 지표에 기초해 개념에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Van Kamp et al.,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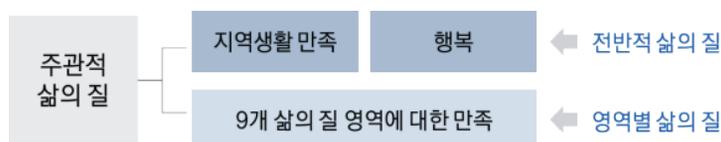
개념과 관련하여 삶의 질을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는 오랜 삶의 질 논의에서 주요 쟁점이었다. 초기에는 삶의 질이 양적 지향적 관점, 특히 경제적 부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양적 측정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개념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객관적 방식으로 사회, 경제의 질적 측면을 측정하기를 강조(서인석 외, 2015)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객관적 지표가 사람들의 삶의 조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후생을 적절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조건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의미와 중요성을 포착할 수 있는 주관적 지표 또한 필요함을 주장했다(Bognar, 2005). 결국 많은 연구자들이 삶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을 포괄하면서 주관적 만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상호보완적 입장을 택하며(Cummins, 2000; Diener and Suh, 1997), 오늘날에는 삶의 질 개념의 범주가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이 결합되고 통합된 의미로 정의된다(Tonon, 2020). 이러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삶의 질을 주관적 차원으로 정의하거나 행복, 삶의 만족 등 주관성을 의미하는 개념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해왔다. 가령, WHOQOL Group(1994)은 개인이 속한 문화·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개인의 목표, 기대, 기준, 관심과 관련하여 자기 삶의 위치(position)에 대한 시각으로 삶의 질을 정의했다. Diener and Suh(1997)는 사람들의 삶의 주관적 경험에 주목하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³⁾을 삶의 질 측정 접근의 한 가지로 다루었다.

주관적 안녕 접근은 쾌락적(hedonic) 느낌과 인지적 만족이라는 의식적인 경험에 따라 안녕이 정의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개인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유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주관적 차원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서로 다른 정주공간 속에서 개인이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 삶의 질을 다룬다.

앞서 살펴본 논의와 같이 삶의 질은 무엇으로 측정하는가를 기준으로 객관적 삶의 질(objective quality of life)과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quality of life)로 세부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개념의 인지(認知) 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이 연구에서는 외부적으로 관찰된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한 객관적 삶의 질은 포함하지 않고, 삶의 주체가 자각·평가하는 주관적 방식의 인지를 의미하는 주관적 삶의 질을 다룬다. 전반적인 주관적 삶의 질로 지역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 그리고 영역별 주관적 삶의 질로 기초생활환경, 일자리·소득, 환경, 공동체, 의료, 안전, 교육, 문화·여가, 복지 등 9개 삶의 영역과 관련한 정주여건에 대한 주민의 인지적 평가(만족) 수준이 포함된다(그림 1). 지역생활 만족도는 거주지역에 대한 구성원의 기대의 충족 정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내고, 행복도는 개인적 차원에서 인지되는 절대적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낸다.

2) 정주공간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공간이 사람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의 한 축으로 도시화에 주목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도시화 수준에 따라 구분된 지역 유형에 따라 사람들이 인지하는 삶의 질(전반적 삶의 질)



〈그림 1〉 연구에서 다루는 주관적 삶의 질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했다.⁴⁾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는 결과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의 경우 도시에 비해 농촌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더 높은 반면, 빈곤한 국가에서는 도시 주민의 삶의 질이 더 높다는 것이다(Luca, 2021; Morrison and Weckroth, 2018; Burger et al., 2020).

농촌에서의 삶이 도시에 비해 삶의 질에 더 유익하다는 연구의 예로, 2008년 European Value Study 자료를 사용하여 EU 회원국 거주민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농촌-도시 간 삶의 질 차이를 분석한 Sørensen (2014)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제한 경우에도 도시 주민에 비해 농촌 주민의 삶의 만족이 더 높음을 확인했고, 이러한 경향은 GDP를 기준으로 한 세 국가그룹(상·중·하)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아일랜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안녕을 연구한 Brereton et al.(2011)은 도시 주민에 비해 농촌 주민의 삶의 만족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음을 확인했다. 2014년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국내 거주민 약 5천 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삶의 만족, 행복)의 영향요인과 공동체 의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김이수(2016)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정향, 사회적 자본, 제도적 역량과 지역 특성(도시-농촌 터미변수 포함)을 통제한 다중회귀모형 분석을 통해 도시 주민에 비해 농촌 주민의 행복도가 더 높음을 확인했다(삶의 만족은 유의하지 않음). 2015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자료를 통해 약 9천 명을 대상으로 개인 요인과 지역환경 요인(영역별 지역인프라 만족), 지역정책 요인(도내 타 시·군과 비교한 거주지 발전 수준 인지)을 통제하여 분석한 최예나(2016)의 연구에서도 시보다 군 지역에서 삶의 만족이 더 높았다.⁵⁾ 김병섭 외(2015)는 행복도에 대해 지방정부의 주거 서비스 만족도와 주거상태 관련 삶의 질 수준, 개인 특성을 통제한 모형을 분석하여 군>일반시>특별시·광역시 순으로 행복도가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농촌에서 주관적 삶의 질이 더 높다고 확정하기에는 문헌에 따라 엇갈리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어 여전히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도 있다(Lenzi and Perucca, 2021). 연구에 따라서는 분석 조건에 따

라 결과가 달라지거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도시화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도시에서 삶의 질이 더 높다는 반대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

Shucksmith et al.(2009)은 EU의 25개 회원국과 3개 후보국을 대상으로 2003년 유럽 삶의 질 조사(EQLS) 자료를 사용하여 도시-농촌 간 개인의 안녕 차이를 연구한 결과, 가장 부유한 12개 국가에서는 농촌 거주자의 주관적 안녕이 도시 거주자보다 높았고 덜 부유한 국가에서는 농촌 거주자의 주관적 안녕이 더 낮음을 확인했다.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통제변수가 투입된 모형에서는 도시-농촌 변수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행복의 결정요인을 연구한 Peiró(2006)는 일부 사례의 분석에서만 도시-농촌 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했다. 스웨덴이나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도시화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행복과 도시화 수준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Gertham and Johannesson, 2001; Kalyuzhnova and Kambhampati, 2008). 국내의 경우 2012년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약 1,400명의 응답 자료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소득의 상대적 효과를 위계선형모형의 수준 간 상호작용항을 사용해 분석한 류지아(2016)의 연구에서는 대도시(특별시·광역시) 거주자가 그 외 지역 거주에 비해 행복 수준이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임보영·마강래(2015)는 한국노동패널 7,6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해 인구통계 특성과 사회경제 특성, 지역 특성(인구밀도를 기준으로 구분한 지역 터미변수 포함)을 독립변수로 구성한 순서로짓모형을 분석하여 농촌보다 도시에서 삶의 만족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다.

한편 최영출(2018)이 전국 2,700명 주민의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삶의 만족에 대한 인구사회적 특성 및 정주공간 유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도시(서울, 광역시)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비해 중소도시(동) 주민은 0.24배 더 낮고 농촌(읍·면) 주민은 0.58배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도시화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식·마상진(2007)은 삶의 질을 19개 주관적 지

표(만족도)로 구성하고 주민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가중치(전문가 조사)를 적용해 삶의 질을 지수화하여 도시의 삶의 질 지수(53.17점)가 농촌(47.58점)보다 높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삶의 각 영역에 대한 정주공간 유형 간 주관적 삶의 질 수준 비교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연구에서 만족도 점수의 평균 또는 표준화, 지수화한 값을 비교하거나, 점수를 토대로 순위화, 등급화하여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하는 접근을 취했다. 최민호 외(2019)는 27개 시·군·구의 주민 약 3천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개 영역에 대해 t검정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삶의 질을 비교했는데,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 삶의 질(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삶)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가운데 인적자본(도시>농촌), 자연자본(도시<농촌)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확인했다. 네모토 마사쓰구(2013)는 충청북도 6개 시·군·구를 도시, 농촌, 도농복합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12개 영역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의 분산분석을 통해 삶의 질 만족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도시지역은 취업기회·생활물가 적정(생활·경제), 문화와 여가영역 전반, 의료 수준(건강), 평생교육(교육), 출산양육(복지), 지역거주민·거주환경(주거), 대중교통·교통약자(교통), 주민의견수렴·의견제시(사회참여) 등에서, 농촌지역은 공기(환경), 안심양육(안전), 공무원·지역언론(신뢰)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복합지역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도시나 농촌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대구광역시(광역자치단체)와 경산시(위성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지역으로 8개 영역의 주관적 삶의 질을 t검정을 통해 비교한 최준호(2001)의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가 편리한 생활, 여가·문화생활에서, 경산시가 경제생활, 건강한 생활에서 만족도가 더 높았다. 공공안전생활과 자연환경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도시-농촌 또는 도시위계 등에 따른 정주공간 유형 간 주민의 삶의 질을 비교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농촌의 삶의 질이 더 높다는 결과가 대체로 우세한 가운데, 분석의 세부 조건에 따라 결과의 방향이 달라지거나 유의하지 않은 차이로 나타나기도 하고, 도시 주민의 삶의 질이 더 높다는 결과도 일부 존재한다.

국내 거주민의 삶의 질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국내 연구의 경우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분석 자료가 충분치 않아 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고루 반영한 결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교를 위한 방법론 측면에서 보면 지역유형 간 분산분석 등을 통해 전반적 및 영역별 삶의 질 점수의 평균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다중회귀모형 등 분석모형에 지역유형 더미변수를 포함시켜 다른 영향요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정주공간 유형의 영향을 확인한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정주공간에 따른 차이가 연구의 관심사는 아니며 특정 관심변수(개인 또는 지역 수준)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형에서 통제변수의 하나로서 투입된 것이다. 영역별 주관적 삶의 질(만족도)을 비교한 연구들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각기 다른 기준의 지역유형 간 또는 개별 시·군 간 비교하고 있어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도시와 농촌 간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들은 대상 범위나 분석방법 측면에서 제한적이었다. 도시화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유형 간 삶의 질 비교 관점을 명시한 연구가 많지 않고, 전반적 삶의 질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도록 다차원적 삶의 질을 분석한 연구도 드물다. 삶의 질 수준이나 차이를 파악한 선행연구들은 일부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다수였다.

도시화의 진행 과정에서 농촌지역은 저발전된 공간 또는 정주환경이 열악한 공간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 연구는 사람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 농촌이 갖는 가치에 주목하고 전국단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적 가치를 식별하였다. 또한 분석방법의 측면에서 이 연구는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도입하여 거주지 선택에 따른 표본 편의를 통제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비교를 시도하였다는 점도 중요하다. 거주지의 선택에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들도 함께 작용할 수 있어 자기선택 편의(self-selection bias)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비교하려는 정주공간 유형 간 유사한 배경을 가진 응답자들을 매칭함으로써 편의를 줄여 분석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비교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3. 분석 자료 및 방법

1) 정주공간 유형화 및 분석 자료

도시성 및 농촌성이라는 지역 성격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의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의 162개 시·군 전체에 대해 도시화에 따른 장소성을 기준으로 정주공간을 구분했다. 이를 위해 우선 행정체계상의 시(市)와 군(郡)을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했다. 이처럼 구분할 경우 대체로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규모 10만 명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75개 시 중 10개 시가 농촌으로, 82개 군 중 6개 군이 도시로 분류되기 때문에 행정 체계상의 구분 기준을 적용했다.⁶⁾ 한편 인구·경제·문화 등의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높은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도시지역 내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도시의 경우 수도권 인지 여부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여 수도권 도시와 비수도권 도시로 나누었다. 농촌지역의 경우 양평, 가평, 연천 등 3개 군이 수도권에 위치하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 응답자(299명)가 적어 별도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농촌 유형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도권 도시, 비수도권 도시, 농촌 등 세 가지로 정주공간 유형을 구분했다(표 1).

수도권 도시 유형에는 30개 시의 응답자 5,579명(25%), 비수도권 도시 유형에는 55개 시의 응답자 8,915명(40%), 농촌 유형에는 77개 군의 응답자 7,696명(35%)이 해당된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18

(표 1) 정주공간 유형별 시·군

구분	해당 시·군
수도권 도시 (30)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여주
비수도권 도시 (55)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청주, 충주, 제천,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농촌 (77)	연천, 가평, 양평,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강원), 양양,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의령, 함안, 창녕, 고성(경남),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년도에 실시한 전국 단위 ‘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만족도 설문조사’ 자료이다. 이 조사는 문재인정부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정책 수립에 활용할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2018.2.1)을 발표하면서 균형발전지표 중 주관지표를 구축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다.⁷⁾ 전국 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반적 삶의 질 만족도, 그리고 정책영역별 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했다.

이 조사는 2018년 12월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로 진행되었다. 표본 설계 시 시·군의 인구 규모를 고려하되 인구가 적은 지역에도 충분한 수의 주민이 조사되도록 했다. 서울특별시는 1,000명, 광역시는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300명~600명, 그 외 50만 이상 시는 160명, 20만 이상~50만 미만 시는 140명, 20만 미만 시는 120명,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군은 100명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총 22,190명이 응답했다.

전반적 주관적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나는 지금 살고있는 지역의 생활에 만족한다’(지역생활 만족도), ‘나는 현재 행복하다(행복도)’라는 서술에 대해, 영역별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서는 <표 2>의 측정 문항(서술)에 대해 응답자가 거주 시·군을 기준으로 인지·평가하는 수준을 0점(전혀 그렇지 않다)~10점(매우 그렇다) 범위에서 점수를 부여했다. 복수의 세부 문항으로 측정된 영역의 경우 해당 문항들 점수의 평균을 주관적 삶의 질 점수로 사용했다. 각 영역을 나타내는 세부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 α) 값은 기초생활환경 0.69, 일자리·소득 0.77, 환경 0.67, 안전 0.72, 교육 0.73, 문화·여가 0.83이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흐 알파 값이 0.6~0.7 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는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신뢰할 만한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분석 방법

실험적 상황에서는 실험 처리(treatment)의 효과 추정을 위해 무작위로 분류된 처리그룹과 통제그룹(비교그룹)을 나누어 실험한 후 처리의 무작위성에 근거하여 평균적 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s: ATE)를 계산한다. 그러나 사회과학 연구에서와 같이 현실 상황에서 얻은 관측자료의 경우에는 각 개인에 대한 처리 여부의 결정이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처리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소들로 인해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존재하게 된다. 이처럼 관측자료에서는 처리그룹과 비교그룹 간 배후요인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룹 간 단순 비교를 통해서는 처리(정책 수혜 등)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성향점수매칭은 처리를 받지 않은 사람들 중 처리를 받은 사람들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

<표 2> 설문조사의 주관적 삶의 질 측정 문항

구분	측정 문항(서술)	Cronbach- α	
전반적 주관적 삶의 질	지역생활만족	나는 지금 살고있는 지역의 생활에 만족한다	-
	행복	나는 현재 행복하다	-
영역별 주관적 삶의 질	기초생활환경(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상태에 만족한다 상·하수도, 도로, 도시가스 등 기초 생활여건에 만족한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및 주차장 이용이 편리하다	0.69
	일자리·소득(2)	지역 내에 원하는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지역 내에서 노력한 만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0.77
	환경(3)	우리 지역의 소음, 악취,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서비스 등에 만족한다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해 만족한다 미세먼지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적다	0.67
	공동체(1)	주민들이 마을(동네)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
	의료(1)	우리 지역은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
	안전(3)	지역의 자연재해 및 재난 등에 대한 예방과 대비책이 충분하다. 지역의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지역의 소방(구급대원 수, 119센터 접근성) 등 사회안전체계가 충분하다	0.72
	교육(3)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은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다 지역에서 어른들도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이 충분하다	0.73
	문화·여가(2)	우리 지역에는 문화·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접근이 편리하다 우리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 수준에 만족한다	0.83
	복지(1)	우리 지역은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 있다	-

를 이용하여 관측자료에서 처리에 미치는 선행조건들의 효과를 줄이고 인위적으로 무작위통제실험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방법(신희주, 2017)으로, 관찰 가능한 공변수들에 대해 비교하려는 그룹 간 동일한 분포를 갖도록 매칭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처리효과 추정값을 얻을 수 있다.⁸⁾ 매칭을 위해 산출하는 성향점수 $p(E=1|X)$ 는 관찰된 일련의 공변수들, 즉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 벡터 X 가 주어질 때 X 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참여 확률이며, 개인이 특정한 처리를 받게 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한다. 성향점수를 로짓 모형 또는 프로빗모형 등 최대우도 추정법에 따라 추정하고 비교하고자 하는 그룹 간 유사한 개인들을 매칭하여 특정 처리의 효과를 추정한다.

개인이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무작위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정주공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소들로 인한 선택 편이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이 어떤 정주공간에 거주할 기대확률을 의미하는 성향점수를 추정하고, 정주공간 유형 간 성향점수가 유사한 개인들 간 매칭을 통해 차이를 도출함으로써 특정한 정주공간 거주(처리)가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도출한다.⁹⁾ <표 3>과 같이 세 정주공간 유형 간 대응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비교조합인 Treatment 1~3에 대해 성향점수매칭법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응답한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찰 가능한 외생변수로는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성별, 연령, 학력, 직업군, 연 가구소득, 가구원 수, 지역 거주기간 등 개인특성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성향점수를 추정했다(표 4). 성향점수 분포에 있어 비교하려는 그룹 간 중첩되는 영역이 충분히 존재하는지 점검하는 과정으로 추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처리그룹과 비교그룹 간 공통영역(common support)을 확인했다.

분석에 적용한 매칭 기법으로는 최근접이웃매칭(nearest-neighbor matching)과 반경매칭(radius matching), 그리고 이 둘의 혼합을 사용했다. 최근접이웃매칭은 처리그룹과 비교그룹에 포함된 모든 개체의 성향점수 차이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순서대로 가장 근접한 개체를 매칭한다. 반경매칭은 성향점수 차이가 처리그룹의 성향점수로부터 설정한 캘리퍼

<표 3> 정주공간 유형의 효과 분석을 위한 비교조합

구분	Treatment 1	Treatment 2	Treatment 3
처리그룹	비수도권 도시 거주	농촌 거주	농촌 거주
비교그룹(통제그룹)	수도권 도시 거주	수도권 도시 거주	비수도권 도시 거주

<표 4> 성향점수 추정을 위한 변수 및 기술통계

변수	변수의 측정	Mean	Std. Dev.
성별	여성=1, 남성=0	0.505	0.500
연령	만 나이(세)	55.145	17.757
학력더미 1	중학교 졸업 이하=1, 그 외=0	0.319	0.466
학력더미 2	대학 이상(재학 포함)=1, 그 외=0	0.406	0.491
직업더미 1	농림어업=1, 그 외=0	0.192	0.394
직업더미 2	자영업=1, 그 외=0	0.154	0.361
직업더미 3	사무·관리직=1, 그 외=0	0.018	0.131
직업더미 4	생산·기능·노무직=1, 그 외=0	0.110	0.313
연 가구소득	1,500만원 미만=1 1,500~3,500만원=2 3,500~5,000만원=3 5,000~8,000만원=4 8,000만원 이상=5	2.345	1.362
가구원 수	가구원 수(명)	2.793	2.063
지역 거주기간	현재 시·군 거주기간(년)	30.578	22.727

(caliper) 이내인 비교그룹을 매칭한다. 캘리퍼는 두 관측치 간 잠재적으로 매칭 가능한 최대 거리로, 성향점수 차이의 절댓값이 설정한 값 이내인 경우 관측치 한 쌍을 매칭한다. 이 연구에서는 관측치당 매칭되는 개체 수가 1:1 및 1:3인 경우의 이웃매칭, 캘리퍼 설정 거리가 0.1 및 0.05인 경우의 반경매칭, 그리고 캘리퍼 설정 거리 0.15 이내에서 1:3 비율로 이웃매칭하는 방법을 적용했다.¹⁰⁾ 다양한 매칭기법을 활용하여 산출한 처리효과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 제시할 분석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추정된 값의 크기와 방향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은 Stata의 명령어[teffects psmatch]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4. 분석 결과

1) 성향점수 매칭 결과

세 비교조합에 대해 응답자가 각각의 처리그룹에 해

당하는 정주공간 유형에 속할 성향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로짓모형 추정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 모형은 비교그룹 대비 처리그룹의 선택 확률의 로짓을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특성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포함하고 있다.

한편 분석에서 처리그룹과 비교그룹 간 설명변수들이 유사하게 매칭되었는지의 균형(balancing)을 점검하기 위해 비교하는 그룹 간 매칭 전후의 표준화된 차이(standardized differences)와 분산비(variance ratios) 변화를 확인했다. 공변량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경우 표준화된 차이가 0, 분산비가 1의 값을 갖는다. 균형을 판단하는 경험규칙(rule of thumb)으로 표준화된 차이가 0.25를 넘으면 균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본다. 분산비는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수준으로 판단한다. 지면상 문제로 결과를 모두 제시하지 않고 양 그룹 간 응답자들의 특성 차이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되는 농촌[처리]-수도권 도시[비교] 비교조합에 대한 결과의 일부(행복, 1:1 최근접 이웃매칭의 경우)를 예시하였다(표 6).

<표 5> 성향점수 추정을 위한 로짓모형 추정 결과

구분	비수도권 도시[처리] vs 수도권 도시[비교]	농촌[처리] vs 수도권 도시[비교]	농촌[처리] vs 비수도권 도시[비교]
성별	0.093*	0.173**	0.096*
연령	-0.010***	0.002	0.013***
학력더미 (중졸 이하)	0.083	0.178*	0.077
학력더미 (대학 이상)	0.109*	-0.088	-0.237***
직업더미 (농림어업)	0.607***	1.981***	1.143***
직업더미 (자영업)	-0.031	0.092	0.081
직업더미 (사무·관리)	0.085	-0.252	-0.201
직업더미 (생산·기능)	-0.030	-0.132	-0.055
연 가구소득	-0.091***	-0.279***	-0.171***
가구원 수	-0.015	0.001	0.021
지역 거주기간	0.031***	0.034***	0.006***
상수	0.439***	-0.489**	-1.071***
N	11,286	10,353	12,987
Pseudo R2	0.059	0.272	0.125
LR chi2	892.88	3826.64	2245.93
(Prob>chi2)	(0.000)	(0.000)	(0.000)
Log likelihood	-7066.195	-5122.462	-7845.397

* p<0.05, ** p<0.01, *** p<0.001

〈표 6〉 설명변수의 매칭 전후 균형: 농촌-수도권 도시, 행복, 이웃매칭(1:1)의 경우 예시

구분	Standardized differences		Variance ratio	
	매칭 전	매칭 후	매칭 전	매칭 후
성별	0.021	-0.002	0.997	1.000
연령	0.821	-0.089	0.854	0.955
학력더미 1 (중학교 졸업 이하)	0.802	0.030	1.958	1.001
학력더미 2 (대학 이상)	-0.717	0.025	0.722	1.033
직업더미 1 (농림어업)	1.012	0.088	6.542	1.038
직업더미 2 (자영업)	-0.240	-0.026	0.627	0.939
직업더미 3 (사무·관리직)	-0.086	0.007	0.504	1.066
직업더미 4 (생산·기능직)	-0.181	-0.003	0.632	0.991
연 가구소득	-0.804	0.057	0.766	1.092
가구원 수	-0.364	0.018	1.029	1.147
지역 거주기간	1.094	-0.079	2.174	0.961

2) 정주공간 유형별 삶의 질 비교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전반적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정주공간 유형의 효과, 즉 처리그룹에 대한 평균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이하 ‘ATT’)를 도출하여 비교한 결과를 〈표 7〉 및 〈그림 2〉에 제시하였다.¹¹⁾ 결과 표의 ‘매칭 전’ 행에 응답점수의 정주공간 유형 간 차이를 비교한 분산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ATT는 처리를 받은 그룹의 효과와 처리를 받은 그룹이 가상적으로 처리를 받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뺀 효과를 의미한다. 관찰된 평균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이하 ‘ATE’)는 처리에 의한 순수 효과인 ATT와 선택편의로 구성된다. 실제 처리의 인과 효과인 ATT를 구하기 위해서는 선택편의가 0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 ATE는 ATT와 동일해진다(최영준, 2017).

분석 결과를 보면, 농촌 주민이 수도권 도시 및 비수도권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에 비해 행복도가 약 0.3점 더 높다. 이는 정주공간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되었을 가능성을 통제하면 농촌 주민이 도시 주민에 비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절대적 삶의 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 응답 점수의 정주공간 유형 간 차이를 단순 비교한 것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분산분석 결과에서는 농촌과 수도권 도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농촌과 비

수도권 도시 간에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로 농촌 주민이 약 0.1점 더 행복도가 높았다. 수도권 도시와 비수도권 도시를 비교한 경우 분산분석 결과에서는 수도권 도시 주민의 행복도가 더 높았지만,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한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지역생활 만족도의 경우에는 모든 정주공간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 응답 점수의 분산분석 비교에서도 동일했다. 다만 1:3 최근접이웃매칭을 적용한 경우에는 농촌 주민이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0.1점 정도 지역생활 만족도가 더 높지만, 매칭기법 전반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아니다. 지역생활 만족도는 개인의 지역에 대한 기대의 충족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개인의 주거지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대해 개인이 갖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공간 균형(spatial equilibrium) 이론에 따르면, 지역 간 인구가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공간 균형에 도달했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주할 의사가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지역생활 만족도가 지역 간에 같아져야 한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지역생활 만족도의 측면에서 세 유형의 정주공간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이는 공간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7〉 정주공간 유형의 삶의 질 효과(ATT): 지역생활 만족도, 행복도

구분	매칭 기법	비수도권 도시	수도권 도시	농촌 (처리그룹)	수도권 도시	농촌 (처리그룹)	비수도권 도시
		(처리그룹)	(비교그룹)	(비교그룹)	(비교그룹)	(처리그룹)	(비교그룹)
지역 생활 만족	매칭 전		-0.022		0.046		0.069
	최근접이웃매칭(1:1)		-0.020		0.044		0.098
	최근접이웃매칭(1:3)		-0.011		0.099		0.138*
	반경매칭(caliper=0.1)		-0.020		0.044		0.098
	반경매칭(caliper=0.15)+이웃매칭(1:3)		-0.020		0.044		0.098
	반경매칭(caliper=0.05)		-		0.044		0.098
행복	매칭 전		-0.160**		-0.062		0.097*
	최근접이웃매칭(1:1)		0.0005		0.272*		0.301***
	최근접이웃매칭(1:3)		-0.012		0.328**		0.308***
	반경매칭(caliper=0.1)		0.0005		0.272*		0.301***
	반경매칭(caliper=0.15)+이웃매칭(1:3)		0.0005		0.272*		0.301***
	반경매칭(caliper=0.05)		-		0.272*		0.301***

† p<0.10, * p<0.05, ** p<0.01, *** p<0.001

주: 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셀(-)은 모든 처리그룹 관측치에 대해 매칭 가능한 성향점수를 갖는 비교그룹 관측치가 존재하지 않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임.



〈그림 2〉 정주공간 유형의 삶의 질 효과(ATT): 지역생활 만족도, 행복도

† p<0.10, * p<0.05, ** p<0.01, *** p<0.001

주: 그래프의 짙은 막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옅은 막대는 유의하지 않은 경우임.

9개 영역별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정주공간 유형의 효과(ATT)를 비교한 결과를 〈표 8〉, 〈표 9〉 및 〈그림 3〉에 제시했다. 기초생활환경 영역에서는 농촌과 비수도권 도시 간 비교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비수도권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0.1점 정도 더 높은 만족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매칭 전 응답 점수의 분산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약 0.4점 차이

에 비해 그 차이가 훨씬 작아진 것이다. 또한 분산분석 결과에서는 수도권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약 0.4 점 더 만족도가 높았으나,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한 비교에서는 그 차이가 크게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일자리·소득 영역에서는 모든 정주공간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농촌 주민이 수도권 도시

(표 8) 정주공간 유형의 삶의 질 효과(ATT): 기초생활환경, 일자리·소득, 환경, 공동체

구분	매칭 기법	비수도권	수도권	농촌	수도권	농촌	비수도권
		도시 (처리그룹)	- 도시 (비교그룹)	(처리그룹)	- 도시 (비교그룹)	(처리그룹)	- 도시 (비교그룹)
기초 생활 환경	매칭 전		-0.022		-0.378***		-0.356***
	최근접이웃매칭(1:1)		-0.035		-0.040		-0.125*
	최근접이웃매칭(1:3)		0.001		-0.036		-0.109*
	반경매칭(caliper=0.1)		-0.035		-0.040		-0.125*
	반경매칭(caliper=0.15)+이웃매칭(1:3)		-0.035		-0.040		-0.125*
	반경매칭(caliper=0.05)		-		-0.040		-0.125*
일자리 · 소득	매칭 전		-0.258***		-0.170**		0.088 [†]
	최근접이웃매칭(1:1)		-0.141*		0.274*		0.263**
	최근접이웃매칭(1:3)		-0.167**		0.305**		0.290***
	반경매칭(caliper=0.1)		-0.141*		0.274*		0.263**
	반경매칭(caliper=0.15)+이웃매칭(1:3)		-0.141 [†]		0.274*		0.263**
	반경매칭(caliper=0.05)		-0.141 [†]		0.274*		0.263**
환경	매칭 전		0.203***		0.705***		0.502***
	최근접이웃매칭(1:1)		0.288***		0.764***		0.432***
	최근접이웃매칭(1:3)		0.279***		0.674***		0.483***
	반경매칭(caliper=0.1)		0.288***		0.764***		0.432***
	반경매칭(caliper=0.15)+이웃매칭(1:3)		0.288***		0.764***		0.432***
	반경매칭(caliper=0.05)		-		0.764***		0.432***
공동체	매칭 전		0.219***		0.985***		0.766***
	최근접이웃매칭(1:1)		0.109		0.554***		0.421***
	최근접이웃매칭(1:3)		0.177*		0.575***		0.402***
	반경매칭(caliper=0.1)		0.109		0.554***		0.421***
	반경매칭(caliper=0.15)+이웃매칭(1:3)		0.109		0.554***		0.421***
	반경매칭(caliper=0.05)		-		0.554***		0.421***

† p<0.10, * p<0.05, ** p<0.01, *** p<0.001

주: 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셀(-)은 모든 처리그룹 관측치에 대해 매칭 가능한 성향점수를 갖는 비교그룹 관측치가 존재하지 않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임.

주민에 비해 0.3점 가까이 더 만족도가 높다. 이는 수도권 도시 주민의 일자리·소득 영역 만족도가 농촌 주민보다 더 높게 나타난 매칭 전 분산분석 결과와 반대되는 것이다. 농촌과 비수도권 도시 간에는 매칭 전 분산분석에서는 농촌 주민이 0.1점 가량 더 높았으나 (10% 유의수준), 성향점수 매칭 비교에서는 농촌 주민이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약 0.3점 더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그 차이가 확대된다. 도시 유형 간에는 수도권 도시 주민의 만족 수준이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매칭기법에 따라 0.1~0.2점 정도 더 높다.

환경 영역에서는 모든 정주공간 유형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농촌 주민의 경우가 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약 0.7~0.8점 더 만족 수준이 높고, 비수도권 도시 주민에 비해서도 약 0.4~0.5점 더 높다. 도시 유형 간 비교의 경우 비수도권 도시 주민의 만족 수준이 수도권 도시보다 0.3점 정도 더 높다. 이러한 차이는 응답 점수의 분산분석 결과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확인된다.

공동체 영역에서는 농촌과 도시 유형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농촌 주민의 만족 수준이 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약 0.6점,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는 약 0.4점

〈표 9〉 정주공간 유형의 삶의 질 효과(ATT): 의료, 안전, 교육, 문화·여가, 복지

구분	매칭 기법	비수도권	수도권	농촌	수도권	농촌	비수도권
		도시 (처리그룹)	도시 (비교그룹)	(처리그룹)	(비교그룹)	(처리그룹)	도시 (비교그룹)
의료	매칭 전		-0.054		-1.203***		-1.148***
	최근접이웃매칭(1:1)		-0.038		-0.760***		-0.677***
	최근접이웃매칭(1:3)		-0.062		-0.563***		-0.699***
	반경매칭(caliper=0.1)		-0.038		-0.760***		-0.677***
	반경매칭(caliper=0.15)+이웃매칭(1:3)		-0.038		-0.760***		-0.677***
	반경매칭(caliper=0.05)		-		-0.760***		-0.677***
안전	매칭 전		-0.078†		0.119**		0.196***
	최근접이웃매칭(1:1)		-0.064		0.083		0.220***
	최근접이웃매칭(1:3)		-0.055		0.078		0.166**
	반경매칭(caliper=0.1)		-0.064		0.083		0.220***
	반경매칭(caliper=0.15)+이웃매칭(1:3)		-0.064		0.083		0.220***
	반경매칭(caliper=0.05)		-		0.083		0.220***
교육	매칭 전		-0.097*		-0.467***		-0.370***
	최근접이웃매칭(1:1)		-0.099		-0.129		0.064
	최근접이웃매칭(1:3)		-0.087		-0.114		0.067
	반경매칭(caliper=0.1)		-0.099		-0.129		0.064
	반경매칭(caliper=0.15)+이웃매칭(1:3)		-0.099		-0.129		0.064
	반경매칭(caliper=0.05)		-0.099		-0.129		0.064
문화·여가	매칭 전		-0.285***		-0.567***		-0.282***
	최근접이웃매칭(1:1)		-0.263***		-0.171		0.164*
	최근접이웃매칭(1:3)		-0.323***		-0.017		0.088
	반경매칭(caliper=0.1)		-		-0.171		0.164*
	반경매칭(caliper=0.15)+이웃매칭(1:3)		-0.263**		-0.171		0.164†
	반경매칭(caliper=0.05)		-		-0.171		0.164*
복지	매칭 전		0.035		0.319***		0.284***
	최근접이웃매칭(1:1)		0.067		0.257†		0.178*
	최근접이웃매칭(1:3)		0.016		0.244†		0.162*
	반경매칭(caliper=0.1)		0.067		0.257†		0.178*
	반경매칭(caliper=0.15)+이웃매칭(1:3)		0.067		0.257†		0.178*
	반경매칭(caliper=0.05)		0.067		0.257†		0.178*

† p<0.10, * p<0.05, ** p<0.01, *** p<0.001

주: 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셀(-)은 모든 처리그룹 관측치에 대해 매칭 가능한 성향점수를 갖는 비교그룹 관측치가 존재하지 않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임.

더 높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점수 분산분석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지만 유형 간 차이의 크기는 줄어든 것이다. 수도권 도시 주민과 비수도권 도시 주민 사이에서는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한 비교 결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의료 영역에서는 농촌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이 낮은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농촌 주민은 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약 0.6~0.8점,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약 0.7점 더 만족 수준이 낮다. 응답점수 분산분석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지만 차이의 크기는 줄

어든 것이다. 도시 유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안전 영역에서는 농촌과 비수도권 도시 사이에만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다. 농촌 주민의 만족 수준이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약 0.2점 더 높다. 응답점수 분산 분석 결과에서는 농촌 주민이 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약 0.1점 만족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10% 유의수준)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사라진다. 도시 유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교육 영역의 경우, 응답점수 분산분석 결과에서는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농촌 순으로 만족 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성향점수매칭을 통한 비교 결과에서는 유형들 간 유의한 차이가 모두 사라진다.

문화·여가 영역에서도 응답점수 분산분석 결과는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농촌 순으로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지만, 성향점수매칭 비교 결과에서는 농촌과 수도권 도시 간 차이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고, 농촌과 비수도권 도시는 오히려 역전되어 농촌 주민이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약 0.2점 더 만족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수도권 도시 주민의 만족 수준이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약 0.3점 더 높은 결과는 동일하게 확인된다.

복지 영역에서는 농촌 주민의 만족 수준이 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약 0.3점 더 높고(10% 유의수준)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는 약 0.2점 더 높다. 도시 유형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주공간 유형 간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의 상대적 순위를 종합하여 <표 10>에 제시하였다.

5. 결론

이 연구는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하여 주민들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정주공간 유형 간 비교했다. 주민들의 거주지역 선택이 주관적 삶의 질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연구는 자기선택 편의를 제거하고자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했다. 연구의 결과는 도시적 세계의 바깥 공간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행성적 도시화론자들의 주장과는 다른 전망을 가능케 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주민의 지역 생활여건에 대한 기대의 충족 정도, 즉 상대적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생활 만족도’의 측면에서는 모든 유형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지역생활 만족도가 지역에 대한 개인의 기대를 반영하는 척도로서 이주 의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지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주공간에 관계없이 만족도가 대체로 유사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표 10>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비교한 정주공간 유형 간 주관적 삶의 질 수준 비교

구분		유형 간 순위
전반적 삶의 질	지역생활만족 행복	농촌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농촌>비수도권 도시 ≒ 수도권 도시 (농촌>수도권 도시)
영역별 삶의 질	기초생활환경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농촌 (수도권 도시 ≒ 농촌)
	일자리·소득	농촌>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환경	농촌>비수도권 도시>수도권 도시
	공동체	농촌>비수도권 도시 ≒ 수도권 도시 (농촌>수도권 도시)
	의료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농촌 (수도권 도시>농촌)
	안전	농촌 ≒ 수도권 도시 ≒ 비수도권 도시 (농촌>비수도권 도시)
	교육	수도권 도시 ≒ 농촌 ≒ 비수도권 도시
	문화·여가	수도권 도시 ≒ 농촌>비수도권 도시 (수도권 도시>비수도권 도시)
복지	농촌>비수도권 도시 ≒ 수도권 도시 (농촌>수도권 도시)	

주: ≒ 표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닌 경우임.

라 인구이동이 어느 정도 공간 균형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종합적으로 성찰하여 평가한 절대적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내는 ‘행복도’의 측면에서는 농촌 주민이 수도권 도시, 그리고 비수도권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 수도권 도시와 비수도권 도시 간에는 행복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이처럼 도시에서 누리는 정주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생활 만족 면에서도 뒤지지 않고 행복도는 오히려 더 높다.

구체적 삶의 영역별 주관적 삶의 질 측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수도권 도시에서 상대적 우수성을 보이는 영역과 농촌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일부 유형 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¹²⁾ 기초생활환경, 의료, 문화·여가 등 영역에서는 수도권 도시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높다. 기초생활환경의 경우 수도권 도시와 다른 유형 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오히려 농촌과 비수도권 도시 간 차이만 유의하다. 교육 영역에서는 수도권 도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지만 각각의 유형 간 비교 모두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일자리·소득, 환경, 공동체, 복지 등 영역에서는 농촌 주민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이 수도권 도시 및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높다. 특히 환경과 공동체 영역에서 확인되는 농촌지역의 높은 만족 수준은 매칭 전 응답 점수의 분산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 것으로, 주관적 삶의 질 측면에서 이들 영역에서 농촌 지역의 우수성이 뚜렷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 유형에 비해 농촌 주민이 경험하는 일자리·소득 영역의 만족 수준이 더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안전 영역은 농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지만 비수도권 도시와의 비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수도권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각각 상대적 우수성을 보이는 영역이 존재하는 반면, 비수도권 도시가 강점을 보이는 영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일자리·소득, 문화·여가, 안전 등 영역에서는 유형 중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도시화의 확장과 거대도시화 추세 속에서 다양한

경제적 기회와 각종 서비스 등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이점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농촌적 가치, 즉 농촌의 맥락에서 깊이 향유할 수 있는 삶의 질 가치 역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에서 도시에 비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이 더 높다는 국외의 연구(Luca, 2021; Morrison and Weckroth, 2018; Burger et al., 2020; Sørensen, 2014; Brereton et al., 2011)와 일치하고, 다중회귀분석 등 단순한 방법을 통해 분석하거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국내 연구 결과들(김이수, 2016; 최예나, 2016; 김병섭 외, 2015)과도 일치한다. 특히 환경, 공동체, 복지 등 영역에서 확인된 주관적 삶의 질 측면의 농촌의 우수성은 일반적 상식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단순 비교를 통해 다소 엇갈리게 보고되었던 결과(최민호 외, 2019; 네모토 마사쓰구, 2013; 최준호, 2001)를 전국적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밀한 비교분석 방법을 통해 재확인해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향적으로 증가해온 귀농·귀촌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 2020년에 귀농·귀촌한 인구는 약 49.5만 명으로 집계되며¹³⁾ 최근 수년간 매년 45~50만 명 규모로 귀농·귀촌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송미령 외, 2021). 전반적으로 고전하고 있는 지역의 여러 현실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촌이나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로컬의 가치를 추구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례를 접할 수 있다. 다수의 지향은 아닐지라도, 전 지구적 규모로 확장해가는 도시화 논리 속에서도 도시적 삶에 역행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대도시와는 다른 공간을 선택하고 개척해가는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시대에 돌입하여, 라이프스타일이 소비와 여가, 일상뿐 아니라 일, 도시, 공동체 전반에 대한 인식과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거시적 시각에서 라이프스타일 혁신은 전 근대 사회의 전통 가치와 근대 사회의 물질주의가 탈 산업 사회의 탈물질주의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물질주

의 사회에서 신분, 경쟁, 조직, 노력이 강조된 반면, 탈물질주의에서는 개성, 다양성, 삶의 질, 사회적 가치가 중시된다. 탈물질주의 라이프스타일은 사회적·연대적 소비, 일상의 향유와 이웃과의 소통과 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직업과 일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모종린, 2020).

도시화의 확장과 심화가 지속되어 거주할 수 있는 대다수의 공간이 고도화된 도시적 공간이 된다면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물론 도시적 삶 속에서도 환경, 공동체 등의 가치와 관련해 어느 정도 만족을 얻을 수 있겠지만, 가령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의 가치와 농촌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의 가치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결국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의 범위는 작아질 것이다. 삶은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각 개인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와 삶의 방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치가 발현될 수 있는 공간의 존재가 전제조건이 된다. 더구나 최근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기후 위기나 팬데믹 상황에서 농촌지역이 강점을 가지는 환경, 공동체, 복지 등의 가치는 행성적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점점 더 고도화되는 도시화 경향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가치를 담고 있는 공간으로서 농촌이 갖는 가치를 환기하며, 농촌이 존속·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본질에 주목하여 농촌 지역만의 가치를 창출·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경관 가치를 훼손하는 농촌지역 난개발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농촌 정주환경을 정비·개발해가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간계획에 기반한 농촌재생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공동체 측면에서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상을 정주민구 외에도 교류인구나 관계인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최근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농촌으로 이주하거나 교류·관계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미래 커뮤니티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되 농촌 공동체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전

통적인 미덕의 정수를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한편 비수도권 도시의 경우 상대적 우수 영역이 부재하여 주관적 삶의 질 관점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 결과는 점점 더 양극화되는 도시화 추세 속에서 비수도권 도시들에서 사람들이 추구할만한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향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비수도권 도시들은 특히 일자리·소득 영역에서 가장 낮은 만족 수준을 보이므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지역 청년의 활동과 취·창업 기회를 지원하는 정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확대될 필요가 있다. 공동체와 환경 영역에서는 수도권 도시에 비해 강점을 보이므로, 일자리 영역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이들 영역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비수도권 도시에서의 전반적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수도권 도시의 삶의 질 향상 정책에서는 현재 가장 낮은 삶의 질 수준을 보이는 문화·여가 영역에 대한 특별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한 정주공간 유형화로 수도권 도시, 비수도권 도시, 농촌 등 세 가지로 지역을 구분했다. 성향점수매칭 방법의 적용 시 비교 가능한 모든 유형 간 조합에 대해 분석하므로 논의가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유형을 더 세분하지 않았지만, 각 유형 내에서도 지역들 간 이질성이 존재한다. 특히 같은 비수도권이라도 수도권 인접성이나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지역 여건에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형화를 더 세분하거나 구분 기준을 달리한다면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향점수 추정 시에는 관찰 가능한 외생변수로 설문 조사를 통해 파악 가능한 개인특성 변수들을 사용했는데, 건강 상태나 결혼 여부 등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고려되지 못한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처럼 설문조사에서 측정되지 않은 선행요인에 따른 편 부분은 성향점수 추정 시에 반영되지 못

한 한계가 있다. 한편 이 연구는 단년도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횡단면적 분석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확인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성향점수매칭법을 활용한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 비교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삶의 질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객관적 삶의 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지역 간 삶의 질을 보다 엄밀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삶의 질과 함께 객관적 삶의 질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극복되기를 기대한다.

주

- 1) e-나라지표, 도시지역 인구현황, 용도지역 기준.
-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메가시티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에 비견할 만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거대 도시권을 형성함으로써 권역별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 국토적으로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 3) 삶의 질과 안녕 개념의 다양성을 연구한 Gasper(2010)는 삶의 질과 안녕이 서로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서 이 두 개념 모두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그 범위가 서로 거의 완전하게 중첩된다고 하였다.
- 4) 국내에서는 도시화 수준을 기준으로 지역 간 비교하는 관점을 명시한 연구가 많지 않아 도시적 위계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한 연구도 포함하여 검토했다.
- 5) 전년도인 2014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 특성과 사회적 자본, 공동체 의식(및 공동체 의식의 조절효과)을 통제한 모델을 통해 분석한 최예나·김이수(2015)의 연구에서는 군보다 시 지역에서 행복도(종합적 수준의 행복도)가 더 높다.
- 6) 시·군의 인구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18.12.31. 현재) 기준.
- 7) 주관지표 구축을 위한 이 조사는 문재인정부 초기에 향후 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한 모니터링 등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전화조사의 도입부에서는 해당 조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전 국민의 행복과 정주 만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며, 응답된 내용이 향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안내되었다.
- 8) 설문조사를 통해 가용한 공변수들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되지 못한 교란요인(confounders)에 의한 편은 누락될 수 있다.
- 9) 어떤 경우라도 동일한 개인이 모든 지역에 직접 거주해보고 비교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 거주지역의 삶의 질에 대해 평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무작위통제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비교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다른 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한 가운데서 모든 지역에 거주해본 경험을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무작위통제실험과 유사한 비교 성과를 낼 수 있는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된다.

- 10) 매칭 가능한 성향점수를 갖는 비교그룹 관측치가 모든 처리그룹 관측치에 대해 존재하지 않아 결과가 제시되지 않게 되는 캘리퍼 거리 지점을 확인하여 분석이 가능한 최소의 캘리퍼 거리를 설정했다.
- 11) <그림 2>와 <그림 3>에서 1:1 이웃매칭의 경우와 분석 결과가 거의 유사한 반경매칭(caliper=0.1), 반경매칭(caliper=0.15)+이웃매칭(1:3)의 결과는 생략하였다. 이 결과는 독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 12) 기초생활환경과 의료 영역에서는 2순위인 비수도권 도시와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고, 문화·여가 영역에서는 2순위인 농촌과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 13) 송미령 외(2021)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시에서 농촌으로 804,953명, 농촌에서 도시로 761,749명이 이동하여 농촌으로의 순유입은 43,204명으로 집계된다(주민등록전입신고원자료 기준).

참고문헌

고명철·최상욱, 2012, 삶의 질(QoL) 연구의 행정학적 함의와 제언, 「한국행정학보」, 46(4), pp.103-126.

구교준·김성배·윤종현, 2012, 용인 가능한 지역 간 격차와 지역정책, 「한국행정학보」, 46(3), pp.173-92.

김병섭·강해진·김현정, 2015, 지방정부서비스가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주거영역 삶의 질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 중심, 「행정논총」, 53(3), pp.29-56.

김이수, 2016,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주관적 웰빙의 결정요인 연구-공동체 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0(2), pp.157-82.

네모토 마사쓰구, 2013, 도·농 지역별 삶의 질 분석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전방향-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10(1), pp.77-93.

류지아, 2016, 행복에 대한 소득의 상대적 효과: 위계선형모형의 수준간 상호작용항을 사용한 분석, 「한국사회학」, 50(1), pp.255-88.

모종린, 2020, 「인문학,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다」, 파주: 넥서스.

박대식·마상진, 2007,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 「농촌경제」, 30(4), pp.31-55.

- 서인석·기영화·우창빈, 2015, 지방정부 가치척도로써 주관적 삶의 질 증진과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의 관계-Kee 커뮤니티웰빙 모형의 6 자분요인을 적용하여, 『한국행정연구』, 24(4), pp.29-66.
- 송미령·성주인·심재현·한이철·민경찬, 2021, 2020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pp.1-21.
- 신희주, 2017, 성향점수 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s)을 이용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형태와 건강수준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46(1), pp.111-133.
- 임보영·마강래, 2015, 지역 내 준거집단과 비교한 경제적 격차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국토계획』, 50(3), pp.213-24.
- 임희섭, 1996, 삶의 질(質)에 있어서의 현황과 과제: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5(1), pp.1005-1018.
- 최민호·강영웅·이승중, 2019, 기초자치단체 삶의 질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커뮤니티웰빙 모형의 적용, 『지방정부연구』, 23(3), pp.329-56.
- 최영준, 2017,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의 회생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 『BOK 경제연구』, Bank of Korea WP, 34.
- 최영출, 2018, 소득수준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분석: 이항 로짓분석의 활용, 『한국자치행정학보』, 32(3), pp.1-19.
- 최예나, 2016, 전라북도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개인요인과 지역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0(3), pp.291-313.
- 최예나·김이수, 2015, 사회적 자본과 주민행복간 관계에 관한 연구: 공동체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4), pp.53-78.
- 최준호, 2001, 광역자치단체와 위성 기초자치단체의 [삶의 질]에 대한 비교 연구: 대구광역시와 경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13(4), pp.133-50.
- 한준, 2015, 한국인 삶의 질의 사회적 결정요인, 『국정관리연구』, 10(2), pp.67-95.
- Berry, B. J., & Okulicz-Kozaryn, A., 2011, An urban-rural happiness gradient, 『Urban geography』, 32(6), pp.871-883.
- Bognar, G., 2005, The concept of quality of life, 『Social theory and practice』, 31(4), pp.561-580.
- Brenner, N., & Schmid, C., 2014, The ‘urban age’ in ques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8(3), pp.731-755.
- Brereton, F., Bullock, C., Clinch, J. P., & Scott, M., 2011, Rural change and individual well-being: the case of Ireland and rural quality of life,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18(2), pp.203-227.
- Burger, M. J., Morrison, P. S., Hendriks, M., & Hoogerbrugge, M. M., 2020, Urban-rural happiness differentials across the world, 『World happiness report, 2020』, pp.66-93.
- Cummins, R. A., 2000, Objective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 interactive mod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52(1), pp.55-72.
- Diener, E., & Suh, E.,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0(1), pp.189-216.
- Duranton G., & Puga D., 2004, Micro-foundations of urban agglomeration economies, In: Henderson JV and Thisse J-F (eds) 『Handbook of Regional and Urban Economics』, Vol. 4. Amsterdam: Elsevier, pp.2063-2117.
- Fischer, C. S., 1973, Urban malaise, 『Social forces』, 52(2), pp.221-235.
- Fuguitt, G. V., & Brown, D. L., 1990, Residential preferences and population redistribution: 1972-1988, 『Demography』, 27(4), pp.589-600.
- Gaspar, D., 2010, Understanding the diversity of conceptions of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Socio-Economics』, 39(3), pp.351-360.
- Gerdtham, U. G., & Johannesson, M.,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health, and socio-economic factors: results based on Swedish microdata, 『Journal of Socio-Economics』, 30(6), pp.553-557.
- Glaeser, E. L., Kolko, J., & Saiz, A., 2001, Consumer cit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1), pp.27-50.
- Hand, C., 2020, Spatial influences on domains of life satisfaction in the UK 『Regional Studies』, 54(6), pp.802-13.
- Kalyuzhnova, Y., & Kambhampati, U., 2008, The De-

- terminants of Individual Happiness in Kazakhstan, 『Economic Systems』, 32(3), pp.285-99.
- Lederbogen, F., Kirsch, P., Haddad, L., Streit, F., Tost, H., Schuch, P., ... & Meyer-Lindenberg, A., 2011, City living and urban upbringing affect neural social stress processing in humans, 『Nature』, 474(7352), pp.498-501.
- Lenzi, C., & Perucca, G., 2021, Not too close, not too far: Urbanisation and life satisfaction along the urban hierarchy, 『Urban Studies』, 58(13), pp.2742-2757.
- Luca, S. D., 2021, Preferring or Needing Cities? (Evolutionary) psychology, utility and life satisfaction of urban living, 『City』, Culture and Society, 24, 100375.
- Morrison, P. S., & Weckroth, M., 2018, Human values, subjective well-being and the metropolitan region, 『Regional Studies』, 52(3), pp.325-337.
- Partridge, M. D., Rickman, D. S., Olfert, M. R., & Tan, Y., 2015, When spatial equilibrium fails: Is place-based policy second best?, 『Regional Studies』, 49(8), pp.1303-1325.
- Peiró, A., 2006, Happiness, satisfaction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Some international evidence, 『Journal of Socio-Economics』, 35(2), pp.348-65.
- Piper, A. T., 2015, Europe's capital cities and the happiness penalty: an investigation using the European Social Surve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3(1), pp.103-126.
- Shucksmith, M., Cameron, S., Merridew, T., & Pichler, F., 2009, Urban-Rural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 across the European Union, 『Regional Studies』, 43(10), pp.1275-89.
- Simmel, G., 1903/1971, The Metropolis and the Mental Life, In Levine, D. N.(ed.) 『On Individuality and Social Forms: Selected Writing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pp.324-339. (Originally published as Die Großstädte und das Geistesleben ("The Metropolis and Mental Life"), in Die Großstadt. Jahrbuch der Gehe-Stiftung (The Metropolis. Yearbook of the Gehe Foundation), 9 (1903))
- Soja, E.W., 2014, Regional urbanization and the end of the metropolis area. In: Brenner N (ed.) 『Implosions/Explosions: Towards a Study of Planetary Urbanization』, Berlin: Jovis Verlag, pp.276-287.
- Sørensen, J. F., 2014, Rural-urban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Evidence from the European Union, 『Regional Studies』, 48(9), pp.1451-66.
- Tonon, G. H., 2020, The Importance of Teaching Quality of Life Theory and Methodology in Social Sciences Programs, 『Teaching Quality of Life in Different Domains』, Springer, Cham, pp.1-14
- Van Kamp, I., Leidelmeijer, K., Marsman, G., & De Hollander, A., 2003, Urban environmental quality and human well-being: Towards a conceptual framework and demarcation of concepts; a literature study,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65(1-2), pp.5-18.
- Van Praag, B. M., & Baarsma, B. E. 2005, Using happiness surveys to value intangibles: The case of airport noise, 『The Economic Journal』, 115(500), pp.224-246.
- Verheij, R., Mass, J., & Groenewegen, P., 2008, Urban-rural health differences and the availability of green space.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15, pp.307-316.
- WHOQOL Group, 1994,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 (the WHOQOL),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ternational perspectives』, Springer, Berlin, Heidelberg. pp.41-57.
- <인터넷 자료>
e-나라지표, 도시지역 인구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_xcd=1200

계재신청 2022.02.24

심사일자 2022.03.19

계재확정 2022.05.09

주저자: 권인혜, 교신저자: 박인권